

주님의 소원과 명령

창세기 45:1-8, 요한복음 21:15-18

최정웅 목사님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기업 회장들을 초청해서 특강하는 순서가 있었다.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왜 그런가 봤더니, 맥도날드 회장이 와서 강연하고, 끝나고 나니 맥도날드 햄버거가 수백 개가 날아오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먹으려고 많이 온 것이다. 또 코카콜라 회장이 와서 강연을 했는데, 콜라를 페트병으로 받아먹으라고 던진 것이다. 과자회사 회장이 오면 과자가 날아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야단쳤다.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도 안 왔다. 칼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와서. (웃음) 칼 맞아 죽을까봐 안 온 것이다. 웃으라고 한 이야기이다.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뭔가를 받는데 관심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격이나 삶이 평가된다. 구글 같은 회사는 거대 IT기업 아닌가.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주 검색하는지를 본다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광고를 보여주고 쇼핑을 하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검색하느냐가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주 검색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자주 쳐다보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사람들은 뭔가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사는데, 이득이 되면 따라가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멀리한다. 전부 욕적인 동기를 가지고 계산한다. 그것을 보고 창세기 3장 자기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라고 말한다. 이런 관심을 못 벗어나면 결국 나 자신의 체질, 각인, 뿌리가 되어서 문화화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다. 무속, 점술, 우상문화가 되는 것이다. 결국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라는 걸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관심 수준이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조금 나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꽤 모였다. 여러분은 미국에 살지 않거나, 한국 사람들보다는 더 잘 살지 않거나, 그런데도 이렇게 각박해서는 되겠는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이야기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듣기도 하고,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포포도 하더라. 옛날에 한국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이다. 전쟁이 한창 치러지고 있는데, 미군 부대가 행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단장의 눈에, 천막을 치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였다. 건물도 없고 책상도 없는데, 그 전쟁통에도 하얀 천막 두 동을 치고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본 사단장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 '이 나라는 되겠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우리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면 어떻겠는가. 딱 2달러씩만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철모를 벗어서 현금통 삼아 돌리고 2달러씩을 걷었는데, 3만 달러가 모인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학교와 병사들 중에 있었던 건축 전문가들과, 공병대원들의 힘을 모아서 학교를 지어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다. "한 사람이 10달러씩만 낸다면 RU를 운영하고도 남는다. 왜 한국에 손을 벌리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자존심도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나도 허리띠를 졸라셔 50만 원씩을 냈는데, 여러분 재정부장은 1달러도 안 내더라. 그럴 수 있느냐. 구원받은 게 맞느냐. 돈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결단의 문제인 것이다. 주님의 소원, 명령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하루를 살더라도, 한 번 뿐인 내 인생, 복음만을 위해서 살지는 것이다." 세계 이야기했다. 까짓것, 내가 또 오겠다 싶어서. (웃음) 그랬더니 다들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어떤 분은 또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드리기로 했다고 한다. 성령을 받으라. 은혜를 받아라. 우리교회도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가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왔다. 이것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권사님이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 할 사람은 안 하고 못 할 사람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싶다. 내가 시차 적응이 안 되어서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는데, 또 한 분이 '저도 300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들고 왔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둘째가 어릴 때다. 속이 뒤집어져서 아파서 못 견뎌하는 것이다. 9개월 된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다. 밤에 급히 고대병원을 데리고 가서 수술을 시켰다. 그리고 주일이었기 때문에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 너는 네 딸을 참 사랑하는구나. 딸을 위해서는 빛도 잘 내는구나.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느냐." 그때 깨달았다. "아버지,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로부터 내 생은 달라졌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삶을 살려주셨다. 가난하게 살고 부하게 사는 것은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소원과 관

★ 가평고등학교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인천에 상륙해 북한군을 쫓던 미 40사단이 잠시 머무르는 동안 건립됐다. 천막 두 동에서 공부하는 학생 150여 명을 보고 당시 조셉 클레랜드(Joseph P. Cleland)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제안했고 1인당 2달러 이상씩 모아 교실 10개와 강당 1개를 갖춘 학교를 지었다. 학교 이름은 미 40사단 첫 전사자인 케네스 카이저(Kenneth Kaiser Jr.) 하사를 기리기 위해 '카이저 중학원'(중학교+고등학교)으로 정했다. 당시 가평 주민들은 '가이사 중학원'으로 불렀다. / 위키피디아 사진 빌래.

심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들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 듣다가,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진짜 은혜받으시기를 축복한다.

1.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주님이 후대에 게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1)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중요하게 사역하신 것들이 있다. 첫 번째가, 주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 일곱 가지만을 선택해서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증거를 보여준 것이 그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도 '선지자라 하면 정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례요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학 때문에 해방신학, 민중신학, 정치신학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마귀 따라가고 악령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그게 선지자다.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 하나만 알았어도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다. 나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많은 중요한 분들을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 하나를 깨닫는 데에는 그렇게 희생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다. 목사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고 뭐라 하는데, 정치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의 수준이라서 그렇다. 그게 자기 역할인 줄 알고 외치는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그래서,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런 게 고민이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이었다.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는 훈련을 계속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자기 사역을 맡기시고 승천하시지 않았다.

(2)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 후대다.

① 주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그냥 왕으로 바로 오실 수도 있고, 학자로 군인으로 바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어린아이로 오신 것이다. 환경적 목사님은 어린아이주일에 '부도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린이의 은혜, 자식의 은혜다' 하고 설교하시더라. 자녀 때문에 삶의 이유가 생기니까. 램턴트들은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 그만큼 부모들이 램턴트를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니까.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오셔서 인간 어머니,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았다.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때 그보다 더 가치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본인도 직접 체험과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사랑스러워져 가셨다고 누가복음 2:52에 기록했다. 아기로 오셔서 성장과 양육의 모델을 보여 주셨다.

② 30세 이후에는 공생애 활동을 하셨는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이들을 두고 몇 번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어린 아이는 어떤가. 좀 커서 뻔뻔해질때까지 전의 아이들은, 엄마가 팔을 벌리면서 '엄마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봐' 하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엄마를 향해서 뛰어내린다. 엄마가 팔을 거두면 크게 다칠지도 모른다는 걱정 따위는 전혀 하지 않는다. '십일조 왜 내라고 하는 거지? 돈 내라는 것 아니야? 이거 하면 진짜 응답이 올까?'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14에는, 아주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다.

③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니, 제자들이 쫓아 버렸다. 내가 오늘 설교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 좀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이 지금 미국 다녀오셔서 시차도 적응 안 되고 힘드신데 왜 자꾸 귀찮게 하십니까. 저리 가세요.'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것처럼 예수님이 피곤해하실까 싶으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쫓아버리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끌어안고 축복해 주셨다. 19:13-14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얼마나 주님이 후대를 향한 관심이 지대했느냐 하는 것이다.

④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누가복음 23:28에,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우리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 지시는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부탁하셨다는 것이다.

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21:15-18에, 후대를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명령을 주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내 양을 먹이라." 후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인 것이다.

(3) 그러면 왜 어린이들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을까?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한 것 아니냐? 왜 후대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제복이라는 사람들은 당대에 세계복음화 다 해야 한다고 한다. 다 끝내야 한다고 한다. 아마 그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야 할 것이다. 당대에 다 해 버리니까 할 게 없지. 그런데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옛날에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온다고 외치던 목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는 양지바른 곳에 3층 짜리 집을 짓고 있더라. 완전히 다른 것 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대 복음화 다 한다면서 아들 딸은 왜 낳았냐? 그런데 다 낳고 다 하더라. 이상한 사람들이다. 억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세계복음화가 주님의 최대 관심이고 사역인데, 이 일이 한 세대에 끝날 수 없지 않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 더 크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오늘은 RTS를 위해서 헌금하는 날인데, 그래서 마음을 담고 해라. 기도하면서 해라. 헌금이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하다. 매달 만 원 씩 헌금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가 지금 1년에 10억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신학교도 제대로 된 교수를 세울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한다. 누가 해 주겠는가. 다른 사람이 누가 해 주겠는가. 여기에서 종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시며 제자를 또 세우라고 재생산을 명령하신 것이다. 그 대상이 바로 후대였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주님의 최대 관심인 후대에, 우리도 최대로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 장로님들은 숫자가 많아질 텐데, 제일 먼저, 우리 건물을 지하, 지상 총 아홉 층을 한 주에 한 번은 돌아보아야 한다. 주일에는 각 부서를 한 번씩 돌아보아야 한다. 감독하지 말고, 내가 도울 일은 없는가, 우리가 기도할 일은 없는가 찾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운 것이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 않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교회를 그렇게 돌보라는 것이다. 낙심한 아이들은 붙잡고 기도하고 돌보고 힘을 줘라. 밭도 한 번 씩 사 줘라. 그렇게만 하면 우리 램넛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맞지? (웃음)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즐겁고 생산적인 삶,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손완식 집사님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손집사님은 명상, 호흡을 해 본 분이다. 램넛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다. 못 하는 것 안 되는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희망과 사랑과 힘을 주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는가. 후대 현장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키우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2. 후대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두 번째로, 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1) 우리는 지금까지 구역성경을 살펴보면, 후대에 관심을 가졌다가 응답받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일곱 램넛들을 비롯해서 많은데, 구역 때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후대 살리는 흐름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오늘 읽은 구역본문에서도 요셉은 자기의 천명이 후대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창세기 45:7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대를 세상에 두시려고”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나를 팔았다 해서 격경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가?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신앙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인도받은 인물이 사도바울이었다.

①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고 서원으로 들어갔다. 회당은 교회와 학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곳이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1, 18:4, 19:8에 회당으로 들어갔다. 램넛들을 살리려고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다. 우리 신앙 교회는 어떤 면에서 성전보다는 회당 개념이 더 많다. 여기에서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춤도 추고 잔치도 하는 것이다. 그게 회당이었다. 성전도 맞지만 회당 역할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후대를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후대 기를 장소는 마련해 놓았지 않다. 이번에 어떤 청년이 고백했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편합니다.” 여러분은 이유가 많은데, 이 청년은 이유가 없더라. “저를 이 교회 교인으로 생각해 주세요. 다음에 한국에 오면 또 여기에서 예배드릴게요.” 그래서 등록하고 영국으로 돌아갔다. 여러분은 이곳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와, 그 후대의 후대에까지 신앙의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서원은 말 그대로 도서관, 학교 같은 곳이다.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낸 것이다.

②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인물이 나온다. 3층 창에 걸터앉아서 메시지를 들었다. 하도 사람이 많으니가 창가에 걸터앉아서 메시지를 듣다가 졸았는데, 떨어져 죽어버렸다. 바울이 쫓아가서,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다’ 하고는 엎드려 기도했는데 살아나 버렸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 이 자리는 보통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자리다. 요원들만 모인 곳이다. 거기에 유두고가 램넛트로서 참여한 것이다. 제자 중의 제자들이 모인 곳인데 유두고가 거기에 있었다. 지금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아이라고 되어 있었다. 어린이인지 청소년인지 청년인지는 모

르지만, 일단 램넛트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요원들만 모인 곳에 있었다는 말이다. 확실한 것은, 바울의 제자 중에 이런 램넛트 청소년도 끼어 있었다는 것이다.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다. 빌레몬 1:2에 아깍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마 빌레몬의 아들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찍부터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나중에는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어서 중요한 사역을 했다. 램넛트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③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나? 이렇게 바울 팀을 통해서 세워진 램넛트들이 또 다른 램넛트를 세웠다. 후대가 또 다른 후대를 세우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2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했다. 이번에 WRC를 보니까, 돈 든다고 대회만 참석하고, 리더수련회에는 자녀를 안 보내는 분들이 많더라.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다. 사실은 세계램넛트대회는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수련회에서 세워진 1천 명의 리더 때문에 집회가 돌아갔다. 1만 7천 명을 그 천 명이 키운 것이다. 그 천 명을 또 서밋들이 리드했다. 그러니까 1만 7천 명이 집회를 하는데 한 건의 사고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훈련들을 시켰는데, 여기에는 돈 든다고 관심도 안 가지고 참석도 잘 안 하더라. 눈을 뜨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제일 먼저 신청해야 한다. 아이들이 가서 배워오면 집에서 잔소리를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우리가 돈을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될 곳을 알아야 한다. 눈이 열려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으면 되겠는가. 유자연 사모님이 바이올린을 돈도 안 받고 가르쳐주신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배운다. 1층에는 좋은 오르간도 있다. 마음껏 쳐도 되는데 아무도 안 치고 연습도 안 한다. 좀 생각을 다시 해 보자. 나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재능을 주셨는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살자. 우리는 밭통이 아니다. 우리는 밭벌레가 아니다.

말씀을 줄이겠다.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후대다. 그러면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교회 안의 후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질문해야 한다. 주님이 임직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 봐야 한다. 나는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자랑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그렇게 했다. 영동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냇물만 떠먹고,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질문했다. 여러분, 임직을 받으려면 십이기도 한 번은 와야 하지 않겠는가. 기도도 안 하고 성정도 안 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직원들만 모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망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될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밥은 안 굶더라도 기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후대를 바라보아야 한다. 후대를 복음으로 보시기 바란다.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란다. 죽이는 말을 하지 마라. 살리는 말을 하라. 죽이는 쪽으로 가지 마라. 살리는 쪽으로 가라. 그러면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울 팀이 했던 것처럼, 우리 후대를 복음화운동의 주역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훈련시켜야 되겠다. 최대한 복음적으로 바라보고 도와주고 살리면서, 자꾸만 훈련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영적 서밋으로 세우면 우리 후대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저절로 받게 될 것을 믿는다. 이번에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났다. 아들 셋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일 때 처음 만났다. 아버지가 힘들어하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교회 주보를 직접 만들더라. 그러면서 교회 청소도 직접 하는 것이다. “얘야, 너희 교회에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안 계시니? 왜 이것을 내가 다 하고 있니?” 그랬더니 말했다. “계시지만, 그분들은 다 바쁘시잖아요. 이것은 제가 할 수 있어요.” 너무 기특해서 꼭 안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다. “너는 목사가 될 거니?” “아니오, 저는 산업인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를 돕겠어요.” 그랬던 아이가 다 자라서, 지금 30살이 채 되지 않는 나이에 중요한 일을 하면서, 180만 달러 넘는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둘째, 셋째도 학교를 잘 마치고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목사님의 목회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런 후대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후대를 바라보아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에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 선배님들이 있었다’ 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후대들에게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곳, 피곤할 때 와서 쉴 수 있는 곳, 찬양하고 싶을 때 와서 부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후대들이 이것을 두고 감사할 수 있도록, 위대한 부모와 선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후대가 이 안에 있으면, 민족 세계 살리는 위대한 인재로 자라게 될 것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9월을 맞이해서, 주님의 소원과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가 반드시 이 지역을 살리는, 수도권과 민족 살리는, 세계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